

『율리시스』 독회: 「나우시카」

김 석

<일러두기>

- 기록 내용은 독회 토론 석상에서 논의된 담화를 채록한 것이다.
- 1차 정리한 독회기록문은 참석자에게 초고 형식으로 회람되어, 첨삭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 독회기록문을 학회홈페이지 및 회원에게 최종본으로 송부한다.
- *Ulysses*는 Gabler 판본에 의거하여 장과 행을 언급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U*라고 표시한다.
- 발제자의 모두(冒頭) 발제는 <발제>, 참가자 간의 의견 교환은 <토론>으로 표시한다. 사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제목이 붙어있고 비중이 있으며 논점이 명확한 해제의 글은 <토막존평>으로 분류한다.
- 아래의 기록 정리는 앞으로 계속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그 최종본을 학회지에 일괄 전재한다.

제49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502호

일시: 2007. 8. 25.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김상욱

정리자: 김 석

범위: *Ulysses*, Chapter 13 (Nausicaa), Lines 16~242

참석자: 강서정, 김경숙, 김길중, 김상욱, 김 석, 김종건, 남기현, 이인기, 김철수,
손승희, 이종일, 임재오, 전은경, 정인경, 최석무, 홍덕선

<발제>

『율리시스』 제13장 「나우시카」("Nausicca")는 샌디마운트 해변을 따라 펼쳐진 바위를 전경으로 펼쳐진다. 이 에피소드에서 조이스가 호머의 『오디세이』에서 빌려온 서사적 얼개는 『오디세이』 제6장이다. 『오디세이』 제6장이 뱃사람들의 나라인 페이시아(Phaeacia)의 공주 노시카가 해변에서 하녀들과 공놀이를 하는 동안 칼립소를 떠나 이타카로 귀환하던 중 포세이돈이 일으킨 거센 풍랑을 만나 악전고투 끝에 페이시아에 상륙하여 탈진한 상태로 근처에서 굳히 자고 있던 오디세우스를 깨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이스의 『율리시스』13장은 바니 키어넨(Barney Kiernan) 주점에서 시민(the Citizen)으로 불리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에게 인종적 차별이라는 봉변을 당했던 블룸이 샌디마운트 해변을 거닐며, 고단한 마음을 달래고 있던 중 그 곳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나온 거티(Gerty MacDowell)와 텔레파시(telepathy)적 교감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3장 도입부에서 조이스는 보여주기(showing)의 기법을 통해 샌디마운트 해변과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성 마리아 성당 그리고 그 성당에 금주 피정을 온 신도들의 기도문이나 분향 제례 등을 중첩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동정녀 마리아의 이미지는 거티를 표상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이러한 거티의 순결한 이미지는 후에 거티가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블룸에게 노출하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아이러니한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거티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등

장하는 에마(Emma)와 닮은꼴이다. 스티븐에게 있어서, 에마는 동정녀 마리아처럼 순결하다 못해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지만, 다른 한 편에서 성욕의 대상으로서의 여체 그 자체이기도 하다. 제13장에서 눈에 띄는 조이스의 서사전략은 거티의 여성적 시선이다. 독자는 거티의 여성적 시선을 통해 아일랜드의 가부장제를 엿보게 된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픈 거티의 처녀적 소망은 그녀가 짝사랑하는 레지 와일러를 장래의 남편감으로 상상해보지만, 레지가 천주교 집안 태생인 그녀(아일랜드계)와 종교가 다른 신교도(영국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거티의 결혼소망은 당시 20세기 초 아일랜드의 만혼의 결혼 풍속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만혼의 관행은 청년 실업자를 대량 양산해 내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버린 당시 아일랜드 사회의 붕괴 직전의 경제와도 관련된다.

<토론>

○ 1차 토론 (2:00~4:30) Lines 1-122

김길중: 전체적으로 보아 아름답고 매혹적인 문체로 쓰인 *Nausicaa* 장은 독자로 하여금 이 장을 반(anti-)페미니즘적 서사의 한 예로 읽을 것인지 아니면 반페미니즘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로 접근해야 할는지 하는 판단의 질문을 던짐.

이종일: *Nausicaa*의 전반부는 장의 중심인물이라 할 거티(*Gerty*)의 이상화된 시각을 형상화하고 있는 만큼 독해에 있어 텍스트적 아이러니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 이런 맥락에서 텍스트가 거티를 성모 마리아나 햄릿의 어머니 *Gertrude*와 관련지어 보여주는 여러 연계적, 상충적 이미지들을 눈여겨볼 필요 있음. (특히 *Bloom*과 *Stephen*이 종종 예수 및 햄릿에 결부된다는 점에서). 97행 “a languid queenly *hauteur* about *Gerty*”가 그 좋은 예.

홍덕선: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비슷한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는 여성성 혹은 여성스러움(*feminity*)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있지 않을까? 즉 여성성 재현의 전통에 양 극을 형성해온 성스러움과 요부적임의 이분법? 우리의 동시대적인 예로는 영국의故 다이애나 비가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게 아닐지.

홍덕선: 다이애나 비, 그러니까 적어도 언론지상에 유통, 유포되어온 그녀의 이미지는 확실히 한편으로는 순수, 고결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 어필, 혹은 가회 마녀적이라 할 매혹스러움이 서로 상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남기현: 그러한 양가성은 일차적으로 여성잡지와 같이, 손쉽고 즉물적인 소비문화를 조장해온 출판자본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고정관념(stereotype)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홍덕선: 물론 사회의 남성중심주의적 시각을 반영하는.

남기현: Nausicaa는 확실히 이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강하다 볼.

홍덕선: 하지만 이렇게 재현된 여성성이 과연 문화의 인위적 산물이라 볼 수 있을까?

김철수: 양가성의 문제만 보자면 물론 마리아라는 고유명사 역시 그 근원이라 할 성서에서부터 2명의 마리아로 나뉘어 있음. 즉, 예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와 창녀 출신인 막달라 마리아인데, 사실상 창녀 마리아 역시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예수의 열 두 제자 중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칭찬을 받았음.

전은경: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그러한 여성성의 형성에 있어 남성중심적 시선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 오늘날 여성소비문화를 이끄는 여러 산업영역에서도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있음. 예를 들자면 여성 속옷의 톱디자인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고 전해 들었음.

김길중: 따지고 보면 고대신화 속의 비너스 역시 남자의 창작물이 아닌가?

홍덕선: 그렇다면 피에타(pieta)와 같은 유형의 우수한 작품들을 양산해온 성모 마리아의 강력한 이미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김길중: 딸과 타여성에 대한 남성의 이중적 욕망, 욕구의 발로.

남기현: 프로이트는 남자의 욕망을, 엄마가 처녀이길 바라는 역설적이고도 자기모순적인 욕구라 설명한바 있음.

김길중: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ausicaa 장의 서술자는 확실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편안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창출해내고 있음.

이종일: 적어도 장의 후반부에 다달아 거티와 블룸의 시선이 오르막과 내리막처럼 교차하고 대비되기 전까지.

홍덕선: 78행의 질문, 즉 “Who was Gerty?”는 이러한 화자의 문제를 앞서 부각시키고 있음.

남기현: 물론 이를 위해 72행에서 텍스트는 거티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음.

김길중: 거티는 형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며 또 바로 그런 이유로 3명의 여자친구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

- 이종일: 마치 무성영화의 번사처럼 텍스트는 그녀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음.
- 강서정: 이러한 필터적 장치는 동시에 장의 메타픽션(meta-fiction)적인 면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함.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주인공의 남성중심주의적 시각을 강조함으로써 소위 ‘예술가적’ 시선의 한계성, 편협성을 드러내주듯. 어쩌면 조이스는 블룸이나 매춘과 같은 주제를 예술 그 자체의 선상에서 생각해볼길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닐지. 일상의 규칙으로부터 벗어난 일탈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 김상욱: 일군의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스티븐 데달라스를 여성혐오주의자라 폄하한바 있음.
- 전은경: 『초상』에 대한 페미니즘적 일반론은 적절한 접근방식으로 볼 수 없음. 여성에 대한 스티븐의 생각은 “여성성”으로서 이는 남성적 이데올로기, 또는 관념에 대한 counterpart로 기능하고 있음. 다시 말하면 “여성성”은 가톨릭이라는 추상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으로, 또는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페미니즘 시각으로 이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함.
- 이종일: 또 물론 스티븐과 조이스를 동일시하면 안 됨.
- 김길중: 스티븐과 블룸이 비록 조이스 자신의 일부, 특히 혹은 바로 저자의 반(anti-)도그마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하더라도.
- 김철수: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 Nausicaa의 도입부는 거티의 등장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성격이 짙음. 거티의 위대함을 익살적으로 과장, 강조하는 이어지는 서사와 어울리게.
- 전은경: Cyclops 장이 술집의 묘사를 통해 아일랜드적인 것(Irishness)을 강조하고 있다면 Nausicaa는 아이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카톨릭 아일랜드의 또 다른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듬. 이 부분을 읽으며 Frank McCourt의 소설 『Angela's Ashes』를 연상하게 되었음.
- 이종일: 36행의 “drew the breath of life”와 같은 표현은 장의 과장된 시선, 들뜬 어조의 한 전형적 예라 할 수 있겠음. 단순히 “breath”라고 표현해도 될 장면에서 ”꼭 있어야 할 것, 가장 소중한 것“이란 의미를 지니는 ”breath of life”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 남기현: 47-8행에서 “the maxim that every little Irishman's house is his castle”은 “Englishman's house is his castle”라는 격언을 비꼬고 풍자하는 게 아닐지. 특히나 “little”이라는 표현의 추가!

김상욱: "little"은 또 동시에 Tommy와 Jacky에 대한 비유로 볼 수도 있음. 즉 Tommy와 Jacky를 영국과 아일랜드에 비교함으로써.

김길중: 쌍둥이 설정은 흥미로움.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주의자의 대비로 볼 수도 있겠음.

김종건: 또 물론 그 쌍둥이의 모티프(motif)는 『피네간의 경야』에서 Shem과 Shaun이라는 쌍으로 이어짐.

남기현: 제우스신과 레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쌍둥이도 사이가 안좋았던 것으로 기억됨.

홍덕선: 다시 한번 스테레오타입의 문제.

김철수: 성경에서는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완전한 적으로 나옴. (서양의 텍스트에서는 쌍둥이의 대립이 대단히 심각한 대립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도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가 서로 다른 종족으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대립함으로써 적대적 쌍둥이의 Prototype을 이루고 있음.)

이종일: 텍스트에서 각기 Tommy가 영국을, Jacky가 아일랜드를 상징적으로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Jacky가 지은 모래성의 건축방법에 대해 Tommy가 왈가왈부하면서 이를 탐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패러디 구실을 한다.

전은경: 어린 쌍둥이 아이들에 대한 간단한 묘사와 이들이 나누는 극히 평범한 대화에서조차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대립의 주제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됨.

최석무: "Englishman's house is his castle"이라는 격언을 만든 게 영국인데 왜 주권국인 아일랜드를 침략하냐는 항의 섞인 질타.

남기현: 다른 얘기지만, 애인이 누구냐고 놀리는 것은 『더블린 사람들』 "Encounter"에서도 반복된 질문임. Tommy와 Jacky의 항해사복이 그렇듯, 유년기 남성성에 대해 아일랜드사회가 갖는 과도하고 폭력적인 집착.

김길중: 남녀부동석이란 말이 보여주듯,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엔 '너 연애하냐'고 놀렸음.

전은경: 식민사회라는 상황 무시 못함.

이종일: 77행에서 "gentleman"은 블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김종건: 문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Nausicaa 장의 초반, 중반부는 인상주의 화법의 시각적 특성들을 살리고 있고, 후반부는 표현주의적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음. 어쩌면 3인칭에서 1인칭 서사로 전환하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비견될

- 수 있음. 그런데 번역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문제로 작용함. 즉, 화폭적 이미지나 그 분위기를 얼마나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 김길중: 인상주의가 순간포착을 중시함과 동시에 텍스트에서는 낭만적 분위기나 감상주의적 묘사도 드러나고 있음.
- 김종건: 4행에 언급되는 호쓰(Howth)는 조이스 작품세계에서 반복되 부각되는 가장 중요한 지리적 요소중 하나. 『피네간의 경야』 8장에서 빨래하는 여자가 느릅나무로 변하고 또 하나는 바위로 변하는 것을 상기해볼 필요 있음.
- 이종일: 이안 와트(Ian Watt)는 *Conrad in the Nineteenth Century*에서 콘래드의 *Heart of Darkness*에서 말로우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대기로 인식하는 찰나의 순간 포착을 문학적 인상주의의 전형적 예라 주장한바 있음.
- 김종건: 에밀 졸라의 *The Masterpiece*에서 세느강 묘사는 Nausicaa의 인상주의적 기법을 연상시킴. 버지니아 울프의 *To the Lighthouse*나 헨리 제임스의 *The Ambassadors*와의 비교도 흥미로워 보임.
- 홍덕선: 울프의 의식의 흐름은 콘래드의 기법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콘래드의 기법이 인상주의에 가깝다면 전자는 포스트인상주의라 해야 하지 않을까.
- 전은경: 울프의 작품마다 기법의 차이가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특히나 *The Waves*와 같은 후기작의 과격한 실험을 염두에 둔다면.
- 김길중: *Heart of Darkness*만 보자면 주인공이 미지의 아프리카로의 여행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인상주의를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즉 탐색과 모색이라는 주제가 요하는 문체.
- 김상욱: 다른 말로 하자면 실제의 불확실성.
- 강서정: 현 장에서의 여성묘사도 인상주의에 머물고 있음. 르노와르가 여성, 아이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시사하는바가 크다 할 수 있음.
- 김종건: 298쪽 두 번째 문단의 풍경묘사는 모네(Monet)적이라 할 수 있음.
- 손승희: Nausicaa를 읽으며 Proteus장을 회상했음. 일차적으로 샌디마운트 해변이라는 공통된 장소적 배경이 있지만, 전자의 경우 화법적으로는 점묘주의를 연상시켰음.
- 홍덕선: Proteus 장이 더 인상주의적이지 않은가? Nausicaa 장은 그에 비하자면 실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더 멀어지는?
- 김길중: 인물들이 처음 등장한 이후로는 주로 대명사를 쓰는 것이 관례이나 조이

스는 고유명사를 반복해서 쓰는 것이 흥미로움. 마치 시치미를 떼고, 낫설게 다시 보게 만들겠다는 듯. 점묘화법에 대한 비유는 흥미로운 얘기임.

○ 2차 토론 (4:40~6:00) Lines 123-242

홍덕선: 거티는 몇 살인가? 172행 “sweet seventeen” 언급에 의하면 17세일 것도 같고 221-222행 “she would be twentytwo in November”를 따르자면 21세일 것도 같다.

김종건: 방년 16세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 현재는 21세가 맞다.

남기현: 200행 “love, a woman's birthright”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전은경: 남성 편향적 시각이 반영 되었다 볼 수도 있으나 (따라서 페미니스트의 비난을 살 수도 있겠으나) 여성들 또한 이 말에 동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김철수: 옛 여성잡지들은 남성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등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요즘은 성공으로 주제가 옮겨갔다. (따라서, 과거에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랑”이라는 용어가 여성의 대표적인 감성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되었지만, 현대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와 역할이 강조되면서, 감성적이고 유약한 것처럼 보이는 용어를 여성에게 대입시키는 것에 대하여 직, 간접적인 반대의사가 강하게 부각됨으로써 “사랑”을 여성의 천부적 권한으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풍자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음.)

홍덕선: 158행 “eggblue”는 무슨 색깔인가?

손승희: 달걀 깨질 때 노란자 주변의 푸른색.

김종건: 일전에 J O'Sullivan이 쓴 *Joyce's Use of Colors*이라는 비평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 파란색이 성모를 상징한다면 거티는 잡색. 다양한 색깔, 면모를 보여줌. 마치 『피네간의 경야』의 Issy가 그렇듯.

그런데 300쪽을 보면 이 장의 화자의 기존 성적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O! O!가 반복되는 문단에서는 블룸과 거티를 대변하는 각 남자/여자 화자가 동시에 텍스트를 읽어야 하지 않을까?

김경숙: 블룸과 관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과연 그에게 콧수염이 있는가?

김종건: 311행에서 언급되는 콧수염(“his sandy moustache a bit white under his nose”)은 거티의 아버지 것이 분명하다.

남기현: *Ulysses* 영화 두 편을 보면 첫 번째는 콧수염 없이 두 번째는 콧수염을 붙인 블룸이 등장한다. 그건 그렇고 Giltrap이라는 거티의 외가가 왜 강조되어 언급되는지 궁금하다. 특히 Giltrap의 개 Garryowen.

김종건: Cyclops 장에 나오는 개와 동일.

김철수: 외가의 부각은 부계의 무력함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대부분 조이스의 작품속에는 아버지가 없거나 무능력한 과거예찬론자 (“내가 왕년에는 말야...”)로 나타나고, 어려운 가계의 정신적, 물질적 지주의 역할은 어머니가 하는 것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랜 식민지 생활과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부계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모계의 영향력이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친가보다 외가의 상황이 더 자세히 나온 것도 그런 역사적,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이 있는 듯...)

전은경: 식민지 사회라는 사회 상황(경제적 궁핍과 같은)이 부계의 무력화에 일조했을 수도 있음.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남성의 권위가 서지 않을 테니.

김길중: Garryowen, Giltrap도 아일랜드 역사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김상욱: Gifford의 주에 의하면 Garryowen은 더럽고 폭력이 난무하던 아일랜드 지역 이름.

김길중: 혹 Michael Cusack이 개를 키웠는지 궁금하다. 그건 그렇고 150행 "electric blue"는 무슨 색깔일까?

김종건: 하늘에서 번개 칠 때 색깔일 것임.

전은경: 거티와 『짧은 예술가의 초상』에 등장하는 dove girl을 비교한 논문을 흥미롭게 읽은 기억이 난다. 후자가 신화적 아우라에 쌓여있다면 전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불행해 보인다.

남기현: seaside girl 이미지와 비슷함. Circe 장에서는 창녀로 재등장.

김길중: 불륜의 자위도 그렇지만 이 장에는 잔인한 상상이 줄곧 등장한다. Circe에서는 끔찍해진다. 사실 창녀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다는 증거는 없지 않은가?

남기현: 479장 마지막 행을 보면 ("I'm only a shilling whore") Cissy Caffrey는 확실히 창녀로 나오는 것 같다.

김길중: 하지만 착란과 현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남기현: 동감.

전은경: 여성의 사회적/도덕적 추락을 통하여 식민지 상황을 극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제 식민지 당시 한국 여성의 정신대와 같은 경우. 식민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도덕도 경제와 맞물려 있음. (현실과 사회이해에 대하여 조이스는 대단히 물질적 접근을 하고 있음)

김상욱: 평균 결혼 연령이 많았다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 있음.

김길중: 『더블린 사람들』 "The Boarding House"에서 Bob Doran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다. "Two Gallants"에서 Lenehan의 결혼 관련 몽상은 거티의 바램을 연상시킴.

최석무: Nausicaa는 쇼킹한 기법으로 후에 뒤따를 Circe를 준비하는 것 같다. 정숙한 여자로 보였던 거티는 장의 종반부에 다가갈수록 그렇지 않음이 암시되고

김길중: 점잖기는 하지만 잔인하게.

전은경: 낭만적이고도 감상적이지만 또 바로 이 점 때문에 거티의 상황이 더 슬프고 비참하게 보이는 것 같다. 특히 그녀의 연하남자친구인 Wylie에 대한 언급은 그녀를 더욱 측은하게 만든다.

김길중: 하지만 그 비참함 속에서도 거티의 긍정성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흐름이 그렇듯.

최석무: 극과 극을 경험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어려운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같다.

김길중: Richard Wright는 *Native Son*에서 백인 독자들을 인종차별의 잠에서 깨우기 위해 나름의 충격요법을 쓴 적이 있다.

강서정: 여러 문화적 장치와 기재를 통해 안이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분류의 유희를 무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제50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502호

일시: 2007. 9. 15.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김상욱

정리자: 김 석

범위: *Ulysses*, Chapter 13 (Nausicaa), Lines 243~604

참석자: 강서정, 김경숙, 김상욱, 김 석, 김종진, 김철수, 남기현, 박진훈, 이인기, 손승희, 이종일, 이태수, 전은경, 정인경, 최석무, 홍덕선, Brian McMahon

<발제>

거티와 블룸간의 은밀한 텔레파시적 성적교감의 분위기가 점차로 고조된다. 먼 발치에 서 있는 블룸을 의식하며 말괄량이 처녀 시시가 불쑥 내뱉는 “홍무”(beotectom: 남성 성기에 대한 은유적 표현)와 같은 성에 대한 노골적 표현들이 성적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인근 성당에서 열리고 있는 금주(temperance)를 실천하기 위한 기도회는 거티에게 폭음을 일삼았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 술에 취하면 가정폭력을 일삼은 거티의 아버지는 『더블린 사람들』의 『두 맞상대』 (“Counterparts”)에 나오는 파링톤(Farrington)을 연상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티는 아버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블룸과 거티의 야릇한 성적 감흥은 동정녀 마리아의 이미지와 중첩되면서 점차 고조된다. 거티의 음흉한 생각을 눈치 챈 에디는 뜬금없이 거티에게 실연의 상처를 안긴 레지 와일리의 근황을 물어봄으로써 거티로 하여금 옛 사랑의 뼈아픈 기억을 들춰내게 한다. 그러나 거티는 남녀관계에서 간택의 주체는 남성이고 간택의 대상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가부장제의 틀을 뛰어넘는다. 거티는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레지를 차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토론>

○ Pre-Textual Discussion (2:00-2:20)

홍덕선: *Ulysses*의 제목과 각 Chapter 별 제목 통일 필요. 『율리시스』 제임스조이스저널 다음 호에 『율리시스』 각 장의 명칭을 확정해 공지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학회 여러분들께 곧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임.

※ 이어 각 장의 정확한 발음에 대한 짧은 토론이 이어졌고, Brian과 이태수선생님이 각기 아일랜드식 발음과 고대 그리스식 발음 확인해줌.

영어제목	아일랜드식 발음 (한국어 표기)	고대 그리스식 발음 (한국어 표기)
I. The Telemachaid	탈라마카이드	X
Telemachus	-	텔레마코스
Nestor	네스토어	네스토르
Proteus	프로티어스	프로테오스
II. The Wanderings of Ulysses	완더링스 오브 울리시스	X
Calypso	칼립소	-
The Lotus Eaters	로터스 이터스	-
Hades	하데이즈	하데스
Aeolus	이일러스	아이올로스
Lestrygonians	라이스터고니언즈	?
Scylla and Charybdis	스킬라 앤드 카립터즈	-
The Wandering Rocks	윈더링 록스	X
The Sirens	사이렌즈	씨레네
The Cyclops	싸이클롭스	키클롭스
Nausicaa	노씨카	나우씨카*
The Oxen of the Sun	악슨 오브 더 썬	X
Circe	씨쨌이	키르케
III. The Homecoming	홈커밍	X
Eumaeus	우메어스	에우마이오스
Ithaca	이테카	이타케
Penelope	페넬로피	페넬로페

(* Nausicaa의 경우 aa는 길게 발음함.)

○ 1차 토론 (2:20~4:30) Lines 243-441

이종일: 왜 Virgin Mary인가? 그녀가 요셉과의 결혼 후 성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가 성관계 없이 탄생했기에?

김철수: 예수의 신성 강조키 위해, 마리아의 동정녀 강조.

손승희: 요셉의 경우는 그의 믿음이 높이 평가됨.

김철수: 유대교의 관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사실 강조.

남기현: Via Annunciation, whereby the Archangel Gabriel announces to Mary of her impending pregnancy of the son of God.

김철수: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받은 바 있음.

홍덕선: 247행에 왜 "wigs on the green"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김상욱: big fight, brawl이라는 관용구.

Brian: Supposedly because before engaging in a duel, one would have to take off one's wig. That is, so as to announce the seriousness of the fight.

김종건 (to Brian): Do you have any difficulty in understanding passages in Ulysses without looking up a dictionary?

Brian: With few words, yes. The word 'decoction' for example.

김종건: And some idiomatic expressions as well?

Brian: Yes, some of the Victorian expressions.

김종건: Take, for instance, the line 290, where it says "two sticks about him." '성이나다'를 뜻함. It's a strange expression. And "wigs on the green" on line 247: 번역상에서 색깔의 사상이 망가짐. 조이스의 천재성이 마모된다는 느낌. 주지하다시피 Circe장에서 green은 아일랜드의 편협한 provincialism을 상징하지만, Nausicaa에서는 corruption을 형상화하기도 함.

전은경: 동시에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색깔.

김철수: You recall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Stephen sings about green rose, which is often interpreted as the symbol of creation.

김종건: 181행 "because the green she wore"에서는 부정적 뉘앙스 지님. Nausicaa장이 인상주의적 기법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색깔의 의미가 다른 장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수 있음.

강서정: Looking at the chapter as a whole, it is interesting to see how the secular nature of Gerty's seaside excursion is juxtaposed to the religious retreat which is taking nearby. The juxtaposition, which at the beginning of the chapter, takes the form of structural parallel gradually turns into mixing-up of sexual romance and religious solemnity.

김상욱: Virgin Mary's pure image is also starkly contrasted to various imageries of sexual imageries, "beeoteetom"(line 263) being the prime example.

전은경: For what purpose?

김상욱: *A Portrait* 에서도 그랬듯이 일종의 풍자(satire)가 아닐지.

이종일: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닐지? 물론 극과 극은 만난다는 브루노(Bruno)의 우주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은경: The famous bird-girl scene in it fuses sensuality with the sense of the sacred.

최석무: Ciskey가 만지는 ball도 성적 이미지의 한 예. 특히 남성복을 입고 남자처럼 행동하는 그녀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조숙한 거티와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 떠오르는 성적인 욕망은 그녀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김경숙: If Virgin Mary has been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the polar images of the holy and profane, then Gerty, likewise, can be seen to save Bloom via that dual religious/secular registers.

김상욱: 성은 즐거야 하는 행위라는 조이스의 믿음 반영. 풍자의 문제로 돌아가자면 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에 대한 조롱.

전은경: Nausicaa 장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A Portrait 같은 경우에는 sensuality가 진정으로 성스러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은가?

이종일: unsubstantial image가 바로 조이스가 추구하는 문학적 창조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홍덕선: the sacred이 the sensual과 통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임. 다만 조이스의 초기작에서는 낭만주의(Romanticism)와 숭엄(the Sublime)에 대한 비판이 강함.

전은경: Araby의 마지막 문장은 Courtly love에 대한 환멸(disillusionment)을 새겨둔다는 점에서 그러한 반낭만주의의 전형적 예가 아닐지.

홍덕선: D.H. Lawrence와 비교하면 확실히 반낭만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임.

이종일: 하지만 조이스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기질적인 낭만주의 그 자체에 대한 비판까지는 아님.

김종건: 19세기의 낭만주의는 정면으로 상대하기에는 그 형체가 확실히 모호하고 미끄러운 측면이 있는 문학적 유산이기에 고전주의(Classicism)을 일종의 foil로 집어넣어 활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 T. E. Hulme의 모더니즘에 대한 견해였음. 그런 관점에서 모더니즘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조화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다시 idiomatic expression의 문제로 돌아가서, 290쪽 293-4행의 "the dying embers in a brown study"과 같은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함.

홍덕선: decoction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등장하는 단어인가?

김종건: 사전에 있음. 음료라는 뜻. 286행의 "simple fane"이나 323행의 "cork lino" 같은 표현은 외국인들에게는 확실히 사전을 찾기 전에는 그 뜻을 알기 힘든 부분.

남기현: Wandering Rocks의 1208-9행 “Gerty MacDowell, carrying the Catesby's cork lino letters...”에 대한 인유라는 기능적 측면도 염두에 둘 필요 있음.

전은경: 410-6행은 거티가 블룸을 낭만화시켜 상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장의 끝에서는 그 허황함이 드러나 깨져버리고 말지만.

이종일: 421행 "He was in deep mourning"과 같은 문장 역시 그녀의 과장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지만, 블룸이 그의 내면 깊이 자신의 죽은 아들 루디를 못잊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홍덕선: 432행 "more sinned against than sinning"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이종일: 자신이 지은 죄보다 타인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괴롭힘 당한 게 많다는 뜻.

최석무: In the line 424, Gerty, imagining that Bloom could be either a protestant or methodist, says that she'll convert him into a Catholic. Is that realistic?

Brian: Well, for marriage, she'd have to... Otherwise, she'll have to abandon her family because inter-religious marriages were not allowed.

강서정: 블룸에 대해 환상을 갖는 거티의 태도가 마치 정신적 이상화를 통해 육적인 현실 세계를 배제하는 종교적 환상과 비슷함. 이 장에서 거티가 마치 성모 마리아와 대응되듯 나타나는 것은 거티를 통해 종교의 속성과 세속적 속성을 모두 결합하여 진실의 통합적 국면을 보여주려는 조이스의 의도로 비침.

김종건: 417행에 moustache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과연 블룸은 수염이 있는가?

이태수: 문맥상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 같다.

남기현: 거티가 블룸과 비교하며 언급하는 실존인물인 Martin Harvey는 현존하는 그의 사진을 보면 확실히 수염이 있었음.

김경숙: Calypso장을 보면 블룸이 moustache cup을 사용하는 데 이 또한 그가 수염이 있다는 증거라 확인할 수 있음.

이태수: 420행에 보면 블룸의 코에 대한 상충되는 묘사가 이어지는데 잘 상상이 안간다. "an aquiline nose or a slightly *retroussé*"? 어떻게 생겼다고 보아야 할까?

김철수: 매부리에 들창코가 아닐런지. 미스터 빈처럼.

(모두 웃음.)

남기현: 435-7행, "She was a womanly woman not like other flighty girls

unfeminine he had known, those cyclists showing off what they hadn't got..."에서 "what they hadn't got..."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종일: male sexual organ?

최석무: 당시 신여성의 등장과, 신여성들이 자전거를 즐겨 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함.

Brian: It could also be beauty, which manly women, contra Gerty who proclaims herself to be a "womanly woman," would not have.

이대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는 희미하게 묘사되는 내적 생각이 현 작품에서는 22세의 소녀의 시각에서 노골적으로 등장.

김종건: 블룸이 그것도 교회 근처에서 자위행위를 행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조이스의 대답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고 할 수 있음. 관음의 문제에 입각해 보자면, *Finnegans Wake*에서 관음은 가장 무거운 죄.

강수정: 거티의 경우 확실히 그녀가 표상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음. 거티 스스로도 자신을 성모 마리아가 표상하는 속성들과 일치시키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성적 속성이 지워진 마리아를 염두에 두면서도 블룸에게는 성적인 마리아로 비추어진다는 점이 특징적임.

김종건: *Nausicaa*장 초반에는 두 중심인물과 교회가 문맥의 구조상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중반으로 향할수록 서로 뒤섞이고 합쳐짐.

홍덕선: 13장의 문체가 12장의 그것보다는 확실히 쉬움.

김종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확실히 13장의 narration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블룸과 거티가 동시에 성적으로 흥분한다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은경: *Nausicaa*는 거티라는 여성이 중심에 놓인 장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근본적 시각에서는 매우 남성적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남기현: 남성들의 판타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음.

이종일: 조이스의 여성묘사 전반에 대해 생각해 보면 확실히 콘라드(Conrad)보다는 섬세하지만 로렌스(Lawrence)보다는 어딘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 덧붙이자면 로렌스의 경우 그가 양성애자였다는 사실은 오늘날 전공학자들 사이에서는 굳어진 정설.

최석무: 안텔센(Andersen)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였고 아이들을 싫어했음.

○ 2차 토론 (4:40~6:00) Lines 442-604

전은경: 590행에 "I can throw my cap at who I like because it's leap year"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김상욱: 윤년에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행운을 믿는 속설 때문이 아닐지.

김석: 436행으로 잠시 돌아가자면 "cyclists showing off what they hadn't got"에서 "show off"라는 표현은 482행에서 Ciskey가 뛰는 모습을 묘사할 때 다시 반복되고 있음. 이는 자신의 lame foot을 언제나 숨겨야 하는 거티의 심적 중압감을 강조하는 게 아닐지. 즉, "womanly woman"이라는 완곡어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최석무: 당시 여성스럽다할 때는 아이를 잘 돌봄을 뜻하기도 했는데 거티는 아이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음.

김철수: 이 또한 거티가 몸이 완전치 않다는 것과 연관이 있음.

김석: 510행 거티의 "head of nutbrown tresses"와 512-3행 "you'd have to travel many a long mile before you found a head of hair the like of that"은 1904년 파리에서 돌아와 길에서 우연히 노라를 보았던 조이스를 연상시킴. 그녀에게 보낸 첫 연애편지 앞부분에서도 머리에 강조점을 두지 않나? 즉 "I looked for a head of reddish brown hair for long and decided it was not yours."

전은경: "Reddish-brown hair..." *Finnegans Wake*에서도 그 머리색깔이 부각되는 것 같음.

최석무: 거티의 화술은 남성의 시선을 빙자한 표현인듯. 517행 "as a snake eyes its prey" 같은 표현도 블룸의 시선을 염두에 둔 생각 묘사.

김상욱: 566행 "It's for you" 역시 같은 경우.

김석: 그 부분은 상업적 마케팅의 언어를 차용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음.

남기현: 554행에 Father Conroy는 혹 "The Dead"의 가브리엘의 형제일 수도 있을까?

김종건: 조이스의 작품을 읽다보면 544행 "distinguishedlooking"과 같이 꼭 붙여 쓸 이유가 없는 낱말도 붙여 쓴 경우를 자주 보게 됨.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우 어색함을 두 말할 필요도 없음.

이태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 Nausicaa의 아버지 아키오스는 딸이 빨래를 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는데 이는 그녀가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허락한다

는 의미를 지님. 또 바로 이러한 장치를 통해 Nausicaa와 Odysseus 사이 형성될 관계를 앞서 예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Father Conroy의 역할은 좀 아리송해 보임.

전은경: 573-575행에 등장하는 Father Conroy 언급도 중요해 보임.

장서정: 거티와 블룸의 감정이 고조될수록 미사 역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음. 가톨릭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 성사이며, 성체를 모심으로써 예수님 및 다른 신자들과 한 몸을 이룬다고 믿음. 해당 부분은 성체를 강복하는 부분으로서 혼희 사제는 밀떡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며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될 것을 기도하고, 신자들은 성체와 성혈을 영하기 전에 사제가 들어 올리는 '성체'와 '성혈'을 바라보게 되어 있음. Voyeurism과 이 부분을 연결시킨 것은 아닐지? 또한 성적인 것(holiness)과 성적인 것(sexualism)을 함께 결합시켜 각각 정신적인 이상향과 신체적 세계 사이의 분리를 극복하려 한 것은 아닌지?

김철수: 물론 기독교에 대한 조이스의 입장을 풍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성스러운 의 비하보다는 세속적인 것의 신성화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김경숙: Nausicaa의 종반부에서 2개의 미사가 준비 중이라면 그 하나는 교회에 진행되는 그것이고 또 하나는 현 장에서 반복적으로 부각되는 거티의 "transparent stockings"을 그 중심에 두고 벌어지는 mock-mass.

남기현: 라캉이 gaze는 욕망의 투영이라 했을 때, 이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성적 욕망의 발현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소비(consumption)적 욕망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투명 스타킹으로 표상되는) commodity fetishism 일반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이대수: 중세에는 Virgin Mary를 섹스 심볼로 취급하는 관습도 있었음.

김종건: 질서의 창조가 모더니즘의 근본적 지향점이라 한다면, Nausicaa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블룸의 무질서와 그 뒤 배경으로 등장하는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 또 다른 예술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가일 것 같음. 그리고 이러한 융합/창조는 단지 관념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작품 내 문장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음.

여담이지만 서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텍스트를 꼼꼼히 읽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음. 다 이해하고 있다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게 깔려 있는지는 몰

라도 디테일 보다는 BIG PICTURE에 치중하는 모습 보임. 독일인들은 예외라 할 수 있는데 독해과정에서 낱말 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자세히 읽어 나가는 그들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음.

제51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502호

일시: 2007. 10. 20. (토) 오후 3:00~6:00

독회진행자: 김상욱

정리자: 김 석

범위: Ulysses, Chapter 13 (Nausicaa), Lines 605~850

참석자: 강서정, 김경숙, 김상욱, 김 석, 김종진, 김길중, 김철수, 남기현, 박진훈,
이인기, 손승희, 송인영, 이종일, 전은경, 정인경, 최석무, 홍덕선

<발제>

거티와 블룸의 은밀한 성적인 밀회가 인근 상가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불꽃놀이에 빚대어 묘사된다. 샌디마운트 해변의 아름다운 저녁놀, 곧 불을 밝힌 가로등, 그리고 밤이 내리는 것은 레지에게 실연당한 거티의 상실감을 더해주고 있다. 블룸이라는 낯선 남자와의 대면을 앞두고 거티는 문득 사고로 절름발이 간 된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의식한다. 거티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 신부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을 안다. 거티의 상실감은 낯선 남자인 블룸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성적 도발로 나타난다. 오핸란(Canon O'Hanlon)의 감사기도가 끝나면서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남자의 성적 충동이 어떤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 거티는 블룸을 향해 점점 더 뇌쇄적인 자세를 취한다. 신문에 실린 스커트 댄서들의 사진을 보고 자위행위를 했다던 어떤 지방관리에 대해 버써(Burtha Supple)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거티는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한다. 불꽃이 올라가고 터지는 장면과 블룸의 성적 흥분이 겹

쳐 서술되면서 거티의 자극적 노출과 블룸의 강도를 더해가는 성적쾌감은 마침내 절정에 다다른다. 이 장면을 정점으로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바뀌며, 블룸이 화자로 등장한다. 다리를 절며 친구들을 따라나서는 거티의 모습을 보며 블룸은 거티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의 연민의 정은 결혼조건에서 여성의 신체적 결합이야말로 얼마나 치명적인가에까지 미친다. 문득 올려다본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며 블룸은 여성들의 달거리에 대한 상념에 잠긴다. 블룸은 거티의 은밀한 부위를 훑쳐본 것이 낮에 일어났던 시가전차에 의해 치일 뻔 했던 썩 유쾌하지 못했던 경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남성화자로서 남성들을 통칭해서 “US”라고 일컬으면서 타자인 여성의 특성을 기술하는 대목에서 블룸의 여성에 대한 남성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어 블룸은 보일런이 몰리와와 성관계를 끝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시 반쯤에 자신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가 멈춰 서있자 그것에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기막한 우연의 일치를 발견한다.

<토론>

○ 1차 토론 (3:00~4:40) Lines 605-740

김종건: 본문을 서정적 클라이막스로 보아야 할까? 여자 reader가 읽을 수도 있지만 Gavin Nose는 남자로서 읽기도 했음.

전은경: 거티의 오르가즘은 진실된 것인지 다소 의문스럽다는 점에서 남자 reader가 읽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음.

김종건: 블룸의 클라이막스로 기록되어 있나?

전은경: 740행 이후부터 블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음.

김종건: "O" 라는 감탄사는 거티만 내뱉는 것일까?

남기현: 블룸은 "Ah"라는 표현 사용.

김철수: 본 행에서는 거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이 명확해 보임. 그녀의 의식이 결혼이란 주제에까지 미치며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음.

전은경: "O"라는 거티의 소리가 텍스트 표면상에서는 하늘에 쏘아올린 불꽃을 바라보며 주위의 인파가 내뱉는 탄성과 겹침.

김상욱: narrator의 객관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독자들의 해석에 맡겨진 몫이 크다고 사료됨.

김철수: 변사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음.

최석무: 주목해야할 점 중 하나는 블룸이 매력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 거티 역시 그에게 끌리고 있는데 이때 그의 모습은 유대인으로서의 전형적인 이국인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음.

김상욱: 299쪽 마지막 문단은 신문을 보고 자위를 하는 남자가 언급되고 있음. 거티 내지 적어도 narrator는 블룸의 자위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음.

김철수: 거티는 블룸이 그런 인간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정확한 지적임. 최석무: 거티가 빠져드는 환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나 그녀가 스킷 언급하는 블룸의 결혼 여부는 의미가 큼.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간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 그런 관점에서 거티가 그와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말 하는 대목은 잘 이해가 안감.

전은경: 거티의 환상과 관련 297쪽 602행 "they both knew..."같은 부분은 거티가 어느 정도 현실이나 제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상상력의 소유자임을 부각해주고 있음. 이런 환상의 연상 속에서도 속옷의 가격과 같은 현실적이고 지극히 디테일적인 언급은 (300쪽 725행) 조이스의 코믹한 제스처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해줌.

김철수: 장의 앞부분에선 거티의 조속함을 부각시키고 칭찬해주는 경향이 있으나 결정적 순간에 그녀가 얼마나 철없는 여자임을 드러내주는 텍스트적 작용과 무관치 않음. 물론 거티의 신체적으로 결합과 이에 대한 그녀의 자의식이 기존의 율리관으로부터 그녀를 자유롭도록 해준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됨.

전은경: 『더블린 사람들』의 "Clay"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환상적 시선이 연상됨.

김철수: 판타지의 기능 중요.

김경숙: 남자친구와 헤어진데서 비롯되는 거티의 상실감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김상욱: 거티 역시 자존심이 강하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음.

남기현: 그런데 거티가 진짜 남자친구를 사귀었던가는 의심을 해보아야하지 않을까? 단지 짝사랑이었을 가능성도 있음.

송인영: 파티에 갔을 때 윌리엄과의 키스를 훔쳤다는 언급이 있지 않나?

김상욱: 거티는 자신이 차였다고 생각함.

송인영: 그 점에 대해서는 텍스트 상에서는 모호함이 있는 것 같음. 윌리엄이 학교 시험 때문에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녀를 보기 싫어 차버린 것일 수도 있으니까. 반면 거티는 윌리엄이 막상 대학에 진학해 변호사의 길을

건게 되면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을 것임을 잘 알고 있음.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과 (22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며 어딘가 우울해 보이고 아웃사이더 같은 분위기를 향해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음.

김철수: 거티는 과연 진실된 마음으로 블룸에게 접근을 하는 것일까?

손승희: 물론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는 않음. 그녀는 조숙한 이미지와는 별개로 화통한 면이 있음. 652행에서 시사되듯 자신의 열정을 발산할 줄 아는, "Seize the Day"라는 표현에 어울릴 듯한.

최석무: 열등감의 발로라고 할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녀는 어떻게 몸을 다치게 되었나?

김상욱: 650행에 보면 Dalkey Road에서 사고로 다쳤다고 언급됨. 그 사고만 아니었더라면 자신이 충분히 성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남기현: 665행 "without all that other..."의 의미는?

김경숙: 성적 암시가 아닐지.

김상욱: 흥등가 생각.

전은경: 지지분한 남녀관계 기타 등등.

홍덕선: "big S"는 성과 결부된 것일까?

김상욱: High Society.

홍덕선: 655행에 언급되는 her sacrifice는 자기 몸 보여주고 싶다는 암시?

강서정: 종교적 epiphany의 일예가 아닐는지. 전장에서 블룸에게 날아간 담배갑이 그렇듯. 동시에 근처에서 진행 중인 교회 성찬식에 대한 종교적 암시가 창녀적인 요소를 성화시키고 있음. 교회와 구세주 대 거티와 블룸이라는 평행적 대비를 통해.

김철수: 성스러운 이미지 통해 성과 속의 상호관계성을 지나라하게 묘사. 652-3행의 "great sacrifice"는 사랑이 굴레를 뛰어넘는다는 발언.(잠언)

강서정: 가톨릭 의식을 조롱했던 1장 도입부에서처럼 헬레니즘의 육적인 요소가 농후하며 이에 기반한 혼과 육의 융화는 단순히 성스러움을 비꼬는 게 아니라 '속'도 성스러운 것이라는 저자 자신의 믿음을 반영하는 게 아닐지.

○ 2차 토론 (4:50~6:00) Lines 741-850

전은경: 805행의 "except the east"의 의미는?

김종건: 동양에선 다르다.

김철수: 중동에서는 편이 떨어져도 여성적 차림새의 멋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이 문맥에서 Mary와 Martha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마리아와 예수를 잘 따르던 나자로의 여동생을 지칭.

손승희: Marrion 즉 몰리와 Martha Clifford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음.

남기현: "On the track of the secret"이란 문구는 앞에서 블룸이 언급한 In the Track of the Sun이라는 동양문명 관련 책에 대한 이어지는 인유로 보여짐.

김종건: 전반 후반 중 어디가 더 어려운가?

전은경: 확실히 후반이 더 어려워 보임.

김종건: 블룸의 slang이 반영된 의식이 흐름이 빈번히 나타나서 그런 것 같음.

홍덕선: 806행 "No reasonable offer refused"의 의미는?

박진훈: 광고문안.

김상욱: 영성들 인반에 대한 블룸의 생각 반영으로도 보임.

김종건: 771행 "Fight boots? No..."이나 "She's lame"과 같은 문장은 현실의 갑작스런 발현이라는 점에서 epiphany같아 보임. 인생이 그렇지 않음. 현실로 되돌아가는 텍스트적 제스처.

김길중: "Mary lost her pin"처럼 애매하게 교차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환상을 깨고 현실적 무게중심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lame"이라는 표현은 너무도 적절해 보임.

손승희: 기존에 소외되어오던 장애 여성을 성적 담론에 개입시킨다는 측면도 중요함.

남기현: 800행 "Us too"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김상욱: 남자들.

남기현: 패션과 관련해서?

전은경: 806행을 보면 비밀 연애할 때 여성들은 달라진다는 의미로 들림.

남기현: "track" "east" "Mary and Martha"로 이어지는 인유의 연장선상에서 읽힐 수도 있음.

손승희: 편은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모자, 머리, 의상, 구두 등에 사용되는 미용 도구. 블룸은 서양 여성들이 편을 사용해 가꾸어진 외모를

외부에 과시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예로 물리를 떠올린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복장에 있어서 훨씬 더 정숙한 중동의 여성들 쪽으로 생각이 흐른다. Maria & Martha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예나 지금이나 중동 여성들은 차도로로 온몸을 감아 여성의 신체적 매력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아예 차단되어 있는 것. 따라서 몸단장을 위한 핀도 필요 없다고 블룸은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함. 김철수: 매력에도 내적, 외적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 패션과 관련지어 얘기한다면 804행 fashion은 명사로 보아야 할 것 같음. 손승희: 동사로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적당한 남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간다는...

김경숙: "She wasn't in a hurry"에서 그녀는 누구일까?

손승희: 거티?

남기현: 그 다음에 뒤따르는 They는 여성들.

손승희: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를 게 없다는 의미로 읽었음.

김철수: 일반 서양여자.

남기현: "She"는 폴리에 가까워 보임.

김경숙: 그 위의 "he"가 보일런이라 물리가 맞을 것 같음.

남기현: 블룸이 거티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김상욱: 거티로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그녀의 침착성 때문이 아닐지. lame해서 빠르지 않고... 만약 물리가 태어난 지브랄타가 동양이라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송인영: 동양이라고 다를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음. 자기가 경험한 2명의 여자에서 비롯된 유추.

김철수: "fashion part"는 주어, "just change"는 동사.

남기현: 물리를 연상하는 것.

홍덕선: 물리가 뭘 서두르지 않는다는 건가?

남기현: 남자 만날 때가 아닐지.

송인영: 값이 맞을 때까지.

김철수: 마음만 맞으면 기다리지 않지만 아닌 경우에는 서두르지 않는다. 옛날의 물리 회상하며 그날 오전의 물리의 모습 비교하는 것 같음.

김종건: Robert Scholes는 구조주의를 전공한 학자로서 이 장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바 있음. 즉 장에 나타나는 의식의 흐름을 먼 생각과 가까운 생각으로 구별하고 다시 Remote Past/Future, Recent Past/Future, Present로 나눠 통계

를 냈음. Scholes의 결론은 텍스트가 언제나 계속해 현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또 이는 모더니즘 텍스트의 전형적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음.

전은경: 837행의 "so"의 의미는?

남기현: "So [ugly...]"가 적절해 보임.

제52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503호

일시: 2007. 12. 15. (토) 오후 3:00~6:00

독회진행자: 김상욱

정리자: 김 석

범위: *Ulysses*, Chapter 13 (Nausicaa), Lines 851~끝

참석자: 강서정, 김경숙, 김길중, 김상욱, 김 석, 김종건, 남기현, 박진훈, 손승희,
송인영, 이인기, 전은경, 정인경, 최석무, 홍덕선, 이종일

<발제>

바자회 행사를 위한 마지막 불꽃이 사그라지는 장면과 블룸의 고조되었던 성적흥분이 급속히 냉각되는 상황이 중첩되면서 서사의 초점은 점차 블룸의 남녀간 애정에 대한 의식의 흐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블룸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멈춰버리게 만든 보이지 않는 힘이 혹시 거대한 자성체인 지구가 발산하는 자기장은 아닐까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남녀가 서로에게 이끌리는 기이한 현상을 자성체간 인력(引力)이 작용하는 원리를 빌어 성찰한다.

블룸이 남녀간 애정의 발동이라는 현상을 자력의 작용이라는 과학의 원리를 들어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아내 물리가 못 남성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그가 객관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블룸의 시점으로 기술되는 "Naussica" 후반부에서 블룸의 의식에는 여러 단계의 연상작용을 거쳐 수많은 과

거의 일들이 출몰하는데 블룸의 이러한 과거지사에 대한 명상에서 늘 중심은 몰리라는 사실이 눈에 띈다. 예컨대, 첫 키스가 여성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첫 단추가 된다는 경험적 사실을 열거하면서 문득 블룸은 옛된 처녀 몰리가 그녀의 첫사랑 멀비(Mulvey)와 첫 키스를 했던 것이 몰리 나이 15세였음을 상기한다. 종국적으로 블룸은 몰리와 보일런이 간통을 저지르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 오쟁이진 남편으로 전락한 사실에 당황하게 되지만 너무도 태연자약하게 행동한다. 블룸의 이러한 침착성의 근원에는 다른 아일랜드인들과 구분되는 블룸만의 과학적/이성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모래사장에 막대기로 블룸이 새긴 "I AM. A."에서 그가 생략한 말은 아마도 "Cuckold"가 아닐까 싶다. 자신이 오쟁이진 남편이라고 자인할 때 그가 느꼈을 비통함은 감정적 차원에서 통렬한 것이지만 자신을 오쟁이진 남편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은 남녀간 이끌림의 현상을 자기작용으로 간파하는 블룸의 과학적 사고가 밑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토론>

○ 1차 토론 (2:00~4:00) Lines 851-1041

김종건: 849행의 "Done"은 억울함의 반영적 표현으로 '당했다'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11장 마지막 페이지(239쪽) 마지막 낱말이 그렇듯, 어떤 의미에서는 기분이 시원하다고 해야하지 않을까?

최석무: 블룸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889행에서처럼("Molly, lieutenant Mulvey that kissed her under the Moorish wall...") 몰리와 멀비를 함께 언급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915행에서("When I said to Mooly the man at the corner of Cuffe street was goodlooking") 다른 사내가 멋지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블룸의 비정상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 같음.

김종건: 그러면 "Done"은 어떻게?

김길중: 느낌은 일면 시원함을 내포할지도 모름. 하지만 표현 자체는 작게 낭독해야 하지 않을까. 축약은 돼있으되 앞과는 좀 다른 어감으로.

김경숙: "Done"은 "[It is] Done"의 줄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제 걱정, 괴로움은 끝났다고 해석하는 게 좋아 보임.

김상욱: 남자의 육감.

전은경: 같은 행의 "She did"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물리보다는 거티를 지칭하는 게 아닐지.

김종건: 블룸의 행위도 그와 함께 종결됨.

김길중: 도서관 장면에서는 "A E I O U," 텍스트 다른 어딘가에서는 "I Am You Are"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블룸이 한때 영어선생으로 일한 경험한 사실을 감안해보면 여기서도 실제 사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라기 보단 문법적 차원에서의 일종의 유희를 통해 초탈한 경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닐지. 신라의 처용가처럼 역지사지해서 관대하게 잇자. 도착증의 쾌락을 일단 괄호 안에 넣고, 상황 그 자체로부터 거리감을 만들어냄으로써 주체적 상황에서 탈출, 일종의 득도의 경지에 다다른.

전은경: Perversion or Transcending...

김길중: 조이스 자신의 경우, 코스그레이브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 노래에 대한 의심을 데이빈 번의 위안에 힘입어 극복하고 나서 쓴 'dirty letter'가 창작을 위한 일종의 훈련이 된 것 같음.

김종건: 의식의 흐름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단음은 그 모호함 때문에 번역이 힘들. 예를 들어 Ah라고 하면 좋아서 인가 슬퍼서인가? 992행과 995행의 "Tip," 1117행의 "Ba"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이고, 모자가 없어서 슬프다고 할 때는 또 "Ha"라고도 함.

남기현: 모든 절정감이 그렇듯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수반하는 모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음. 그런데 문맥상 블룸의 자위행위를 감안해보면 여기서 "Done" 앞에서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전은경: 클라이막스를 생각하면 기분전환도 자연스럽지만 이어지는 부분에서 블룸은 여성에 대한 경계심과 자기방어적인 모습을 함께 내보이고 있음.

김상욱: 897행에 "French letter" 언급이 있는데 성관계 상대도 없는 블룸이 콘돔을 지니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함.

박진훈: 프랑코 모레티는 이 구절을 인용하며 블룸이 보여주는 '수동성 안의 능동성'을 얘기함. 류마티즘에 대한 예방법으로 감자를 들고 다니고 어머니가 준 부적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블룸의 수동적 능동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됨. 이와 더불어 블룸이 Nighttown에 가끔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음.

전은경: 940행 "In Hamlet, that is"의 의미는?

김경숙: 그 전에 나오는 "For this much relief much thanks"라는 대사가 햄릿에 나온다는 뜻.

김상욱: 작품 첫 장면에서 보초 교대할 때.

최석무: 880행에서 "mushroom"은 특별한 의미를 지닐까? 혹 동성연애에 대한 완곡어법?

남기현: phallic symbol임은 명확함.

김길중: a local association.

홍덕선: 912행에 "Eyes all over them"...

김길중: 힌두교에서는 눈이 사방에 있는 형상이 많음.

김종건: 894행 "My fireworks"는 불륨의 배설에 대한 지칭. 933행 "A monkey puzzle..."에서 936행 "... rocks"까지 narration으로 읽음. 그 다음부터는 독백. 946행에서는 문장 "barn"으로 끝나고, "a blind"는 개별 단어로, 즉 속임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함.

김길중: 불륨은 여기서 '거터'가 가짜 이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음.

김종건: 여성은 직감이 빠름. 915~916행 "goodlooking... false arms" 언급에서도 확인되듯.

954행의 "fuller's earth"는 백호를 뜻함.

김경숙: 963행 "that"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김상욱: 처녀시절.

남기현: "marriageable." O'Hare와 간호사도 둘 사이 something이 있었음. 한때 그런 매력이 있었다는 의미. 그런데 966행 "bad policy"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나?

김상욱: 온당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김길중: 남편 바가지 굶으면 bad policy라는.

홍덕선: 969행 "Moorish"가 의미하는 바는?

남기현: 지중해 연안 출신 여인에 대한 편견 반영.

김길중: Moorish라는 표현은 전에도 계속 나왔음. 그런데 954행 "fuller's earth"에서 F는 대문자로 표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좀 다른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관습상 시신을 씻는 건 여성이 아닌가? 아기를 씻기고 후에는 시신을 씻기고. Nausicaa도 원래 빨래를 하러 나온 사람

이고, 이타카로 귀향한 오디세우스의 발을 씻어주며 왕의 정체를 알아보는 것 또한 하녀임.

전은경: 물, 정화는 여성과 연계됨.

남기현: 그런데 왜 블룸을 할례를 받지 않았나? 예수의 foreskin을 둘러싼 카톨릭 교 내에서의 논쟁을 돌이켜 보면 블룸의 그런 상태도 조이스가 의도적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즉, 인종적 정체성이란 측면에서 블룸의 경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최석무: 흥미로운 사실은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초까지 영국인들 사이에서 할례가 꽤 일반적이었다는 것. 중동진출로 인하여 성적, 위생적 측면에서 할례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블룸의 정체성을 문제화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음. 어쩌면 조이스 자신이 유럽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영국, 아일랜드에서의 사회적 상황과 다소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일지도 모름.

홍덕선: 몰리의 향수에 대한 언급도 매우 흥미로움.

전은경: 여성이 향수에 민감하다는 속설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의심스러움. 남성이 더 그렇지 않나?

김상욱: 동물학적으로는 남성이 더 민감해야 할 듯.

김길중: 동물성 사라진 후 동물성을 회구한다는 역설 부각됨.

남기현: 1036행 "Mansmell" 보면 확실히 여성이 더 민감한 것으로 나옴. 사제 언급도 그런 맥락.

전은경: 사제에 대한 조이스 자신의 질투를 반영하는 게 아닐지.

남기현: 그보다는 카톨릭교에 의한 성 억압이 부각되는 게 아닐까?

최석무: 그와 함께 카톨릭교에 대한 여성의 헌신.

김길중: 전은경 선생님의 시각과 동의를 하는데, 조이스 자신이 보다 넓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제가 되길 갈망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음. 매튜 아놀드가 문학이 종교를 대체하길 바랬던 것처럼.

○ 2차 토론 (4:15~6:00) Lines 1042-1306 (13장 끝)

전은경: 312쪽 마지막 문단이 파편적 문자로 뒤섞여 있는 것은 블룸이 즐리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할까?

김상욱: 지친 것 확실.

강서정: 이 부분에서 mixed image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임. "Ba" 같은 단음이 지니는 모호성이나 "false arm"과 같은 언급은 블룸이 욕망의 절정을 거치고난 후 직면케되는 탈신비화된 현실과 환상의 잔영의 뒤섞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줌.

김경숙: 312행이 블룸의 뒤섞인 생각들을 보여준다고 할 때 1280행 "half past the bed"은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 "half past [four and] the bed"?

김길중: 연상이 이어짐 속에 시간이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음. 1282행의 "breadvan Winkle"처럼 완전한 조각은 아니고 연상에 의해 덩어리 지어진 조각.

김종건: 1268행에 "Done half by design"이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half'는 done을 꾸며줄 수도 있고 by design을 꾸며줄 수도 있다.

김상욱: 문맥상으로 보면 큰 배는 못들어 온다는 얘기로 들림.

남기현: 그래서 Kish를 도는 데 80일이 걸림.

김길중: Jules Verne의 『80간의 세계일주』에 대한 인유임도 확실해 보임.

홍덕선: 텍스트에서는 37쪽 267행 "Kish lightship" 언급의 연장선상에서.

김종건: 배가 Kish 등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블룸은 생각. 2장 보면 영국이 고의로 방해해서 만들지 못함.

남기현: 27쪽 327행의 "Galway harbor scheme"과도 연관이 있을런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홍덕선: Kish는 더블린에서 남서쪽 방향 도시라고 함.

김길중: 이민선이 더블린을 출발 리버풀을 들러 아메리카로 향했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는 듯 보임.

김종건: 어떤 학자들은 블룸의 1인칭 독백이 단음을 많이 사용하고, 마침표를 찍어 가며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물리의 독백과 구분시켜 전자를 internal monologue 이라고 지칭하고 후자를 stream of consciousness라고도 함.

본 장 앞부분에서는 분명 인상주의적 문체가 주류를 이루는데 후반부에서는 표현주의가 중심이 됨. 이와 함께 독자의 마음을 작동해 readerly text로 변모해감.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블룸의 독백이 현재를 대상을 할 때가 많은 데 비해 물리의 독백은 과거로 향해있다는 사실.

김길중: 그런데 현 장에서 vampire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조이스의 시에도 빈번히 대두되는데.

김종건: Circe에 가면 박쥐가 vampire로 변신.

김길중: 1270행 "He flung his wooden pen away"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 구약성서에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이라고 하나님께서 답하는데, 이와 불륨의 모습을 비교해봐도 좋을 듯 함. wooden pen은 라틴어로 원래 날개를 뜻하고, 또 그런 어원에서 펜이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 상기할 필요 있음. 물론 pen은 남근을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이카루스의 추락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음.

김종건: 독해 시작에서도 언급하였듯 불륨이 ba, tip과 같은 단음에 집착하는 이유가 흥미로움. 1112행에서도 Rip을 tear라고 곧바로 스스로 정의하고 있음.

김길중: 마치 말이 그 자체로서 등장인물이 되어 살아나는 듯.

홍덕선: 1278행에서 "him"은 보일런일까?

김상욱: 박쥐같이 보임.

손승희: 박쥐와 보일런에 대한 암시가 함께 있는 것 같음.

강서정: 박쥐는 야행성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닌다는 의미에서 보일런과 연관성 있어 보임. vampire의 sexual implication과 함께.

송인영: "Ennis"는 불륨의 아버지 제사가 치러지는 장소.

이인기: 불륨은 아내 몰리와 관계설정에 있어 때때로 자신을 외삼촌 정도로 여기는 듯 보임. 외삼촌은 달리 말하면 '아내 공여자'인데, 이런 의식은 어쩌면 불륨이 아내를 타남성과 공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하는지도 모름.

남기현: 1223행 "wild man of Borneo"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경숙: street rhyme으로 알고 있음.

남기현: 불륨의 그런 모습은 모계사회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의 발로인지도 모름.

이인기: 조이스가 어릴 적부터 여동생들과의 오랜 생활로 내성적 성격이 고착화되었는지도...

송인영: 불륨이 어떻게 보일런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작품내 불륨의 심리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장 뒤부분에 나오는 박쥐가 beast/bird라는 이중적 존재임을 감안할 때 불륨 역시 이질성을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웅동체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음. 동양에서 박쥐가 때로는 재탄생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불륨 역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김길중: 불륨이 체질적으로 복수의 마음을 갖지 못함. 하지만 보일런까지 받아들

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님. 대승적 차원에서, 혹은 관념적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전은경: 장이 Cuckoo로 끝맺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마음이 따로 가는 것 보여줌.

김상욱: 1098행 "I am a fool perhaps"라고 되뇌임.

김중건: 불륨 생각의 반은 물리와 보일런과 관련된 것임. 이장 끝부분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린 보일런에 대한 불륨의 자세를 용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은경: 이해.

남기현: 관용.

김길중: 다른 등장인물과 달리 보일런은 interior monologue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상기할 필요 있음. 내면적 세계를 지닌 인간의 영역에서 그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그런 면에서 용서나 포용, 포섭과는 다른 문제로 보임.

박진훈: 『율리시스』에서 악의 화신으로 나온 자는 휴. C. 헤인즈 러브 목사이다. 특히 조이스는 이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이들의 삶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작가의 의식을 보여주는 일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일런은 성적인 면에서, 러브 목사는 금전적인 면에서 대표적인 악한으로 대표된다.

전은경: 악도 영혼은 있으나 무시하고 있음.

이인기: 조이스와 불륨의 보일런에 대한 시각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불륨의 경우엔 생존을 위한 합리화.

송인영: 장이 "Cuckoo"의 반복을 종결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 장에서 불륨 역시 정신적으로 간음을 했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빼꾸기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듯 불륨 역시 다른 누군가의 미래 신부인 거티를 대상으로 자위를 했다는 측면에서. 중첩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음.